

강정호 시즌 아웃·KIA 멀어지는 5강...야구 볼 낙이 없다

강정호, 정강이뼈 골절 등 부상...6~8개월 재활

美 언론 “위협적 슬라이딩 방지 ‘강정호 룰’ 제정음”

미국 스포츠전문매체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SI)가 “강정호(28)의 부상을 계기로 주자들의 공격적인 슬라이딩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I는 19일(이하 한국시간) “메이저리그는 홈플레이트 충돌 방지법을 만들었다. 지금은 2루 등 각 베이스에서 주자들이 자행하는 위협적인 슬라이딩을 막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정호가 끔찍한 부상을 당하자 미국 언론도 ‘슬라이딩의 위험성’을 지적하기 시작했다.

강정호는 18일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4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했고 1회초 수비 때 병살 플레이를 하려다 왼쪽 무릎을 다쳤다. 컵스의 1루수 크리스 코글란은 강정호가 공을 제대로 1루에 던질 수 없도록 2루 베이스가 아닌 강정호의 왼쪽 무릎을 겨냥해 슬라이딩했다.

코글란의 오른쪽 다리에 왼쪽 무릎을 그대로 받으면서 강정호는 쓰러졌고, 결국 수술대에 올랐다. 왼쪽 무릎 내측 측부 인대 및 반월판 파열, 정강이뼈 골절이 걸린 큰 부상으로, 6~8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 강정호를 향한 위기가 쏟아졌지만 코글란의 거친 슬라이딩에 대해서는 옹호하는 목소리가 컸다.

피츠버그의 닐 위커는 “우리는 학교에

서부터 베이스 앞에서 강하게 슬라이딩하라고 배운다. 코글란의 플레이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강정호까지 에이전트를 통해 “코글란이 할 수 있는 플레이를 했다. 나를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을 것”이라고 코글란을 감쌌다.

메이저리그에서는 병살타를 막고자 야수를 향해 다리를 드는 슬라이딩이 ‘당연한 플레이’로 용인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SI는 이에 반기를 들었다.

SI는 “앞으로 베이스 근처에서 거친 슬라이딩이 나오면 ‘코글란 슬라이딩’이라고 불러야겠다”고 우회적으로 코글란을 비판했다.

이어 “합리적이지 않은 관습이 야구 선수들을 위협에 빠뜨린다.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선수 노조의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지적했다.

SI는 “현재 메이저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등치는 상대를 위협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 슬라이딩 한 번으로 큰 부상이 나온다”며 “선수들의 몸값도 엄청나다. 부상으로 각 구단이 감당해야 할 손실이 너무 크다. 최고의 선수는 병원이 아닌 그라운드에서 팬을 만나야 한다”고 주장을 이었다.

미국은 공격적인 주루를 선호한다. 베



피츠버그 파이리츠 강정호 선수가 지난 17일(현지시간) 시카고컵스와의 홈경기 1회 초 수비 때 병살을 시도하던 중 부상을 당했다. 강정호가 왼쪽 무릎을 감싸쥐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

이스와 홈 플레이트에서 주자와 야수, 포수가 자주 충돌한다. 하지만 2014년부터 홈 플레이트 앞에서 주자와 포수가 몸을 내던지는 장면은 급격하게 줄었다. 2014

년부터 발표된 ‘홈 충돌 방지법’ 덕이다. 한 선수의 심각한 부상이 규정 변화를 이끌었다. 2011년 5월 25일, 샌프란시스코 포수 버스터 포지는 플로리다(현 마이애미) 스

롯 커즌스와 홈 플레이트에서 충돌했다. 격투기를 방불케하는 충돌로 포지는 정강이뼈가 부러지고 양쪽 발목 인대가 파열되는 큰 부상을 당했다. 이후 ‘버스터 포지

법’이라고 불리는 메이저리그 규정 7.13 ‘홈 플레이트 충돌 방지’ 규정이 생겼다. SI는 “강정호의 부상은 또 한 번 규정 손질을 이끌 계기”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타이거즈 벌떼 야구’ 무용지물

선발 붐고·타격 부진에 3연패...5위 SK에 1.5게임차...오늘 양현종·김광현 격돌



선발 붐고, 강적과의 만남, 타격 부진 등 3중고에 빠진 KIA의 ‘벌떼 마운드 작전’이 실패로 끝났다.

KIA 타이거즈가 20일 인천 행복드림 구장에서 열린 SK와이브스와의 경기에서 2-9로 지면서 3연패에 빠졌다. 7위 KIA는 5위 SK와 1.5게임차, 6위 롯데와 1게임차가 됐다.

가장 중요한 시기에 맞은 최악의 위기였다. 양현종에 이어 스티븐슨이 어깨가 좋지 않으면서 꼬여버린 선발 로테이션, 켈리-세튼 두 외국인 투수가 순서대로 등판한 SK. 시즌 내내 이어진 침묵의 방미 등 3중고 속에 펼친 경기였다.

마운드의 위기 극복 전략은 ‘벌떼 야구’였다. 20일 선발 사이드암 박준표는 올 시즌 KIA의 13번째 선발투수였다. 20일 경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13번째 선발’ 이야기를 들은 김기태 감독은 “거기까지는 몰랐다”고 밝힌 뒤 “맛지게 작작 (선발들을) 넣어 야하는데...”라며 멧쩍은 미소를 지었다.

19일 좌완 임기준을 선발로 내세운 KIA는 3회부터 사이드암 박준표를 가동시킨 뒤 홍건희-한승혁으로 마운드를 이었다. 20일에는 3회부터 볼펜 핵심 좌완 심동섭을 투입하면서 마운드 전력을 최대화하려고 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19일에는 박준표가 아웃카운트를 하나도 잡지 못하고 자신의 실책을 더해 4실점(3자책)하면서 일찍 분위기가 기울었다. 20일에는 0-3에서 2-3까지 추격한 6회, 앞서 좋은 활약을 해줬던 베테랑 김광수가 무너지면서 백기를 들었다.

최영필에 이어 등판한 김광수가 첫 상대 정이윤에 이어 박정권에 계속 안타를 허용하면서 흔들렸고, 1사 만루에서 한승혁은 모두 선발 경력이 있다. “필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해주지 그랬냐”는 박준표와 “몰아보지 그랬냐”고 답한 친구들. “볼펜에서 다들 대기하고 있으니깐 전력으로 공을 던지겠다”고 언급했던 박준표는 1회를 삼자범퇴로 막았지만 2회 박정권에게 투런을 맞으면서 첫 선발에서 2이닝 2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동섭야 현종이 형 괜찮다고 하나? = 21일 선발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 로테이션상으로는 양현종이 등판할 차례지만 어깨 상태가 좋지 않는 만큼 김 감독은 “훈련이 다 끝난 뒤 (양현종

19일 1회 1사 1·3루의 기회를 날린 타자들은 4타자 연속 삼진을 당하며 SK 선발 켈리의 기를 살려줬다. 후속타 불발로 8개의 잔루를 남겼던 KIA는 20일에는 ‘공격 라인업’으로 선공에 나섰다. 김주찬을 투타자로 해서 나지완(5번)-김다원(6번)-김주형(7번)으로 외야라인을 짰다. 김주찬이 멀티히트, 나지완이 멀티 2루타로 모처럼 분전했지만 김다원과 김주형이 멀티 삼진을 당하며 무기력하게 물러났다. ‘호주 외국인 선수’ 3번 브렛 필은 19일 희생플라이로 타점을 하나 올렸지만 20일 첫 타석에서 병살타를 때리는 등 주말 2연전 7타수 무안타로 부진했다.

해줘야 할 선수들의 부상과 부진 속, 고심해서 내놓은 벌떼 작전과 공격 라인업이 말을 듣지 않으면서 KIA는 5강에서 더 멀어졌다. 양현종이 정상적으로 21일 선발로 모습을 드러내게 됐지만 SK에 이어 김광현을 만나게 되면서 호랑이 굴에 한숨소리만 요란하다.

/문학=김여울기자 wool@

이런 재미라도...

한국 아시아야구선수권 우승 끝내기 투런포... 4일 2-1 승

한국 야구 국가대표팀이 일본과의 라이벌전에서 승리하며 제27회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윤영환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경기에서 일본에 2-1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0-1로 끌려가던 9회말 2사 2루, 대타로 등장한 하주석(국군체육부대)은 간도 히토시를 공략해 우월 결승 투런포를 쏘아 올리며 팀에 값진 승리를 안겼다. 4연승을 거두며 3승 1패를 기록한 일본을 제치고 단독 1위로 올라서면서 우승을 확정했다.

선취점은 일본이 뽑았다. 한국은 2회초 선발 김상수가 하야시 도시유키에게 좌월 솔로포를 얻어맞았다. 이후 투수전이 계속됐고 한국이 9회말 정규이닝 마지막 공격에 돌입했다.

한국은 선두타자 이우성이 중전안타로 출루했고 박세혁의 희생번트로 1사 2루 기회를 잡았다. 그러나 이원석이 삼진으로 물러나면서 2사에 물러났다. 윤영환 감독은 오선진 타석에서 하주석을 대타로 투입했다.

하주석은 볼 카운트 3볼-1스트라이크에서 간도의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오른쪽 외야석 상단에 꽂히는 대형 어치를 그렸다.

경기 뒤 하주석은 “대회 내내 부진해서 맘고생했다. 대타로 나갈 때 코치님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힘껏 쳐보라’고 하셨다”며 “국가대표로 나와 계속 부진해서 걱정했는데 중요한 때 끝내기 홈런을 쳐서 기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보치아 표적구를 향해 집중 20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 9회 전국 보치아선수권대회에 참가한 광주의 정항기 선수가 표적구(흰색)를 향해 공을 던지고 있다. 보치아는 뇌성마비 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들이 참가해 기량을 겨루는 대회로, 표적구에 공을 던져 표적구로부터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해 승패를 겨룬다. 350여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대한장애인보치아연맹이 주최하고 광주시장애인보치아연맹(회장 성동욱) 주관으로 진행되며 하이트진로, 오텍그룹 등이 후원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덕아웃 T 특특 “현종이 형, 몸 상태 괜찮다고 합니다”

▲라이브로 봤어요 = 많은 이들에게 안타까운 강정호의 부상이었다. 광주일보 출신의 강정호(피츠버그)는 지난 18일 시카고 컵스와의 경기에서 유격수로 나서 병살 플레이를 하다 크리스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왼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메이저리그 진출 첫 해 좋은 활약을 해준 강정호에게 소식을 접한 선수들의 아쉬움은 더 컸다. KIA 주장 이범호도 “마음이 좋지 않다. 부상 당하는 장면을 라이브로 봤었다”며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다.

▲말을 해주지 그랬어 = 첫 선발 등판에 정신 없던 박준표다. 2년째 동강대 출신의 3년차 박준표가 20일 선발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해 선발 기회가 있었지만 전반기 경기가 우천 취소되면서 선발 등판도 취소됐었다. 선발 투수는 선수단보다 늦게 경기장에 나와 느긋하게 준비를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일찍부터 경기장을

배회하던 박준표는 몇 차례 “지금 몇 시냐?”고 질문을 했다. 그리고 경기 1시간 전부터 유니폼을 챙겨 입고 덕아웃에 등장했다. “왜 이렇게 일찍 나와있느냐”고 웃던 동기들. 92동기인 홍건희, 유창식, 한승혁은 모두 선발 경력이 있다. “필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을 해주지 그랬냐”는 박준표와 “몰아보지 그랬냐”고 답한 친구들. “볼펜에서 다들 대기하고 있으니깐 전력으로 공을 던지겠다”고 언급했던 박준표는 1회를 삼자범퇴로 막았지만 2회 박정권에게 투런을 맞으면서 첫 선발에서 2이닝 2피안타(1피홈런) 1탈삼진 2실점을 기록했다.

▲동섭야 현종이 형 괜찮다고 하나? = 21일 선발에 대해 질문을 받은 김기태 감독. 로테이션상으로는 양현종이 등판할 차례지만 어깨 상태가 좋지 않는 만큼 김 감독은 “훈련이 다 끝난 뒤 (양현종

의) 상태를 체크해보아야겠다”고 언급을 했다. 마침 “현종이 형이 찾는다”는 소리와 함께 덕아웃에 심동섭이 등장했고 김 감독은 “동섭야 현종이 형 괜찮다고 하나?”고 물었다. 심동섭은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보입니다”고 웃었고, 21일 선발로 양현종이 예고됐다.

▲나가겠습니다 = 나지완의 부상투혼이었다. 나지완은 19일 7회 대타로 나왔다가 홈에 들어오는 과정에서 오른쪽 발목을 접질렀다. 발목 통증에도 9회 두 번째 타석에서 좌전안타를 때린 나지완은 20일 발목에 타이핑을 하고 등장을 했다. 이날 5번 타자겸 좌익수로 이름을 올린 나지완은 “아프면 쉬어라”는 이야기에 “나가겠습니다”며 훈련을 시작했다. 첫 타석에서 볼넷을 골라낸 나지완은 연속 2루타에 이어 4번째 타석에서도 볼넷으로 출루했다. /문학=김여울기자 wool@

광주체고 펜싱, 전국체전 첫 금

광주체고 펜싱팀이 광주에 전국체전 첫 금메달을 안겼다.

광주체고는 20일 강원도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제 96회 전국체육대회’ 사전 경기로 치러진 펜싱 남자고등부 에페 단체전 부문에서 부산체고를 누르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국체전에 출전한 광주·전남 선수단의 첫 금메달이기도 하다.

광주체고는 박경호·김대인·김국현·김명기 등으로 팀을 구성, 충북체고와 서울체고를 누르고 준결승전에 진출, 강원도 원주고를 따돌리고 결승에 오른 뒤 부산체고를 4대 2로 꺾었다. 광주체고 펜싱팀의 전국체전 단체전 금메달 획득은 지난 2009년(대전) 이후 6년 만이다. 광주체고는 올해 치러진 제 53회 전국남

녀중별빙신선수권과 제 12회 한국중고펜싱연맹 전국남녀중별빙신선수권에서 단체 우승, 준우승 등의 성적을 올리며 전국체전 금메달에 대한 전망을 밝게 했었다.

광주체고 펜싱팀 박경호 선수는 지난 17일 열린 남자고등부 에페 개인전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바 있다. 한편, 펜싱·체조·핸드볼·배드민턴·하키·볼링·요트·복싱 등 8개 종목의 경우 제 96회 전국체전(10월 16~22일)의 사전 경기로 펼쳐지고 있다. /김지욱기자 dok2000@